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음 1월 13일) 제17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야 피해 최소화 추진

##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 지원 축산·원예·인삼 시설 현대화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북도는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매출감소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축수산물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감 품목의 경우 평균 10.3%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단위·법인의 선물수요 감축 등이 지속적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 9.9억원을 확보해 자생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과 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및 인삼 등 88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품목간 연합마케팅으

로 대도시 관측 및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등 유통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마을제품, 가공식품 등은 1인가구 증가, 소비패턴(간편식) 변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며 지역축제, 마을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관계분야·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일차적으로 자생적 극복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社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 ASIA 복합소재 전시회·국제탄소페스티벌 공동 개최 협의

JEC 그룹 임원진 전북 방문  
국제적 행사 확대 추진도 논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 '결실'

세계 최대, 최고의 복합소재 전시회를 주관하는 JEC그룹 임원진(프레드릭 뮈텔 회장 등 3명)이 8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지사를 예방했다.

이날 JEC그룹 임원진은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JEC ASIA 복합소재 전시회와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섹터전시장에서 JEC그룹 뮈텔회장은 2017년 JEC ASIA 복합소재 전시회를 한국(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전북도가 주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및 관련 학계,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JEC



8일 세계 최대, 최고의 복합소재 전시회를 주관하는 JEC그룹 임원진(프레드릭 뮈텔 회장 등 3명)이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하여 서울(코엑스)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JEC ASIA 복합소재 전시회와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를 축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새롭게 추진해온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수준 높은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통해 JEC 임원진에게 큰 공감을 준 것도 한국 개최 결정에 긍정적 요인이 됐다.

이밖에도 송하진 지사가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 JEC그룹 뮈텔 회장과 다져온 오랜 친분관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JEC그룹의 한국 선언 개최를 계기로,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도내에서만 치러지던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를 JEC그룹과 서울에서 공동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대규모 전시행사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

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복합소재 시장에서 대규모 국제 탄소복합재 전시회 및 기술 컨퍼런스를 전북도와 JEC그룹이 공동 개최하게 되면 지난 10년 전북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 선동 날조로 여론 확산 온라인 '가짜뉴스' 성행

최근 온라인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이어 집중단속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그라지지는 않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점으로 치달고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근래에 등장하는 가짜뉴스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특검 흔들기' '대선주자 흠집내기'와 같은 왜곡된 여론 확산 목적이 뚜렷하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타깃이 됐다.

8일 포털사이트에서 박 특검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1999년 여가자를 성추행했다는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 특검의 사진 위에 '여가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확인

한 비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를 유포하며 세물이를 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는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진 캡처 사진이 확산됐다. 얼핏 보면 방송뉴스 화면과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네티즌이 제작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등 기본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

가짜뉴스의 표적에는 대선주자도 빠지지 않는다.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가짜사진을 게재한 경남 진주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이 아닌 대상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장수군

장수사과

빙화동휴양림

논개사당

모두가 가보고 싶은 장수군입니다.

장수몰 JANGSU MALL

NAVER 장수군청 검색

천천면 남양리